

"화엄 바다에서 국난극복 발원"...천리순례단 팔만대장경 친견

A 박준상 기자 | ① 입력 2021.10.10 07:02 | ② 수정 2021.10.11 07:28 | 댓글 0

가 가



223Km, 7개 시군 지나 '법보종찰 해인사' 순례 마친 '상월선원 만행결사 천리순례단'
팔만대장경 친견..."8만 경에 의지해 오늘날 우리가 다른 삶 살 수 있다는 것 감사"
해인사 방장 원각 대종사 법어 "본래 마음이 '불보', 거기서 나온 지혜가 '법보', 그렇게 행동하는 자가 '승보'"



영상이 뜨지 않는 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불교중흥과 국난극복을 기치로 내걸고 출발한 '상월선원 만행결사 삼보사찰 108 천리순례'가 '팔만대장경'을 봉안한 법보종찰 해인사에 이르렀습니다.

해인사에서 화엄 사상과 호국애민 정신을 가슴에 새긴 순례단은 마지막 삼보성지인 불보종찰 '통도사'로 향했습니다.

현장을 동행취재하고 있는 박준상 기자가 전합니다.

최신뉴스

- 불교 | 불교 종립 광주 정광중, '로터스관' 개관
- 문화·스포츠 | 한·중 도시·관광 교류 활성화 다...
- 정치 | 문대통령 "한국, 글로벌 백신생산 허브...공...
- 정치 | 문 대통령, 공수처 검사 8명 임명안 재가.....
- 전국 | '선을 넘다'...제 12회 광주 여성영화제 내...

포토뉴스



인기뉴스

- 1 **이상호 "故 노태우, 공과 평가는 엇갈리지만 역사"**
- 2 **부산, 윤석열-홍준표 지지 선언 대결 속...'줄세우'**
- 3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 '국가장'으로 ... 정재계**
- 4 **[코로나19]부산 코로나 19 신규 확진 49명**
- 5 **[코로나19]접종완료자 총 3천670만9천777명**



해인사 팔만대장경 친견하는 상월선원 만행결사 삼보사찰 108 천리순례단

기자

귀를 기울이면 물과 새, 바람소리와 함께 세월 가는 소리도 들을 수 있다는 '해인사 소리길'

열흘간 223Km, 7개 시군을 지나온 순례자들은 지친 몸과 마음을 소리길에 맡기며 푸르른 풍경 속으로 들어섭니다.

[김호준(스노보드 전 국가대표)/ 안현민(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중앙회장) / 진오스님]

"이 빵빠레가 엄청 잘 어울립니다. 빵빠레 아이스크림이. 스님한테"
"나하고? 빵빠레! 우리 인생 빵빠레가 되어야 해. 마지막은 멋진 연주가 되어야 해"

길 위의 번뇌를 알알이 간직한 108염주를 꼭 쥔 순례자들 눈 앞에 두 번째 성지 '법보종찰 해인사' 산문이 펼쳐집니다.

[현응스님 / 해인사 주지]

"순례를 통한 모든 정진의 내용을 사회와 국가에 모든 일반 사회에 회향 하셔서 국민들이 평안하시고 우리나라가 크게 태평해서, 국운이 융성해 마침내 평화로운 우리나라, 평화로운 우리나라를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을 (죽비소리에) 담았습니다."

[원각 대종사 / 해인사 방장(환영 법어 中)]

"이치로 말하자면 시비장단에서 벗어난 본래의 마음 바탕이 불보이고 거기서 나온 지혜가 법보이고, 그 바탕에서 행동하는 사람이 승보입니다. 삼보는 셋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셋입니다. 이번 삼보사찰 순례를 통해 우리 마음자리를 깨달아 부처의 삶, 지혜의 삶, 도인의 삶을 살도록 합시다."

화엄경을 형상화한 '해인도'를 거친 순례자들에게 해인사는 장경각을 개방해 '팔만대장경' 판전을 친견하는 가슴 뭉클한 순간을 선사했습니다.

고려시대 몽골의 침략을 이겨내기 위해 부처님 말씀을 기록하며 국력을 모았던 선조들의 불심은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 6.25 전쟁 등 숏한 고비를 거쳐 오늘의 108순례단까지 환희심을 안겼습니다.

7 법원,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영장 기각..."구속



8 부산중기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 오늘부터



BBS 칼럼



전경윤의 '세상살이'



전영신의 '시선'



신두식의 '공감노트'



배재수의 '크로키'



이현구의 '스윗 스팟'



선임기자 칼럼

월 1만원 이상, 방송포교후원 공덕주 모임

만공회

가입문의 **1855-3000**

ARS 후원 **060-800-8000**
(한 통화 5천원)

[소종섭 / 시사평론가(동국대 출판문화연구원 기획위원)]

"계속 소리길을 걸어올라오면서 정말 이만한 계곡은 세계적으로도 없겠구나. 너무 홍류동 계곡에 빠졌고. 해인사도 장경각 들어가서 스님들 배려로 직접 팔만대장경판을 친견하고 참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너무 기뻐고..."

부처님 법으로 국난을 극복하고자했던 선조들 처럼 오늘의 순례단도 대장경의 정신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결사의 발걸음은 이제 불보종찰 통도사로 향하고 있습니다.

BBS뉴스 박준상입니다

영상취재/편집 - 남창오 기자



가야산 소리길 걸어 해인사 산문으로 향하는 상월선원 천리순례단



해인사 일주문 안으로 들어서는 상월선원 천리순례단



사부대중의 환영 속에 해인사 대적광전으로 향하는 삼보사찰 천리순례단



상월선원 만행결사의 상징 '장군죽비'를 해인사 주지 현응스님에게 전달하는 상월선원 회주 자승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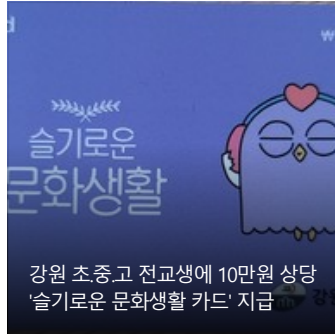


해인사 장경각 팔만대장경을 친견하는 스님들



당신만 안 본 뉴스

강원 초.중.고 전교생에 10만원 상당 '슬기로운 ...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적용" 법제화 시동
윤석열 '개사과' 촬영장소 논란..."해명 석연치 ...
강석호 "김종인, 윤석열 지지하겠다는 생각 바...
[배재수의 크로키] '위드 코로나'와 남산의 가을
[속보] 누리호 위성분리성공
[박경수의 아침저녁 클로징] 누리호 '미완의 성...



기사 댓글 0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
해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기에서는 사용 후 로그아웃 해주세요.

0 / 400

주요기사



불교 종립 광주 정광중,
'로터스관' 개관



한-중 도시·관광 교류
활성화 다짐...2021 한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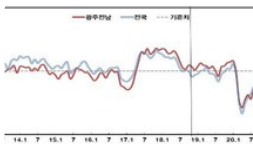
문대통령 "한국, 글로벌
백신생산 허브...공평·신



문 대통령, 공수처 검사
8명 임명안 재가...내일



'선을 넘다'...제 12회 광
주 여성영화제 내달



광주전남 소비심리 2개
월째 상승...전달 대비



매체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저작권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BBS불교방송(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20 (다보빌딩) | 대표전화 : 02-705-5114 | 팩스 : 02-705-5229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재수
제호 : BBS NEWS | 등록번호 : 서울 아 01259 | 등록일 : 2010-06-03 | 발행일 : 2001-09-01
발행인 : 박형수(중하) | 편집인 : 전경윤

BBS NEWS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BBS 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bbsi.co.kr

POWERED BY NBS